자치단체·경찰서 업무용 PC 들여다보니…

# 민원인 앞에서도 웹 서핑 버젓이

## 근무시간에 스마트폰 이용 개인 용무 처리

## 중고품 사이트 조회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 중에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일과 중에 업무용 PC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용무를 처리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A구청의 한 사무실.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업무용 PC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곳곳에선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상당수 직원들은 민원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직원 모두가 업무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한 직원의 업무용 PC 화면을 살펴보자 모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가 링크돼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일부 직원도 보였다. 스마트폰은 주식·게임·문자메시지·인터넷 서핑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업무용 PC를 이용하기보다는 근무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많다고 한 직원이 귀띔했다.

현재 광주지역 각 구청·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 근무 중 주식·게임·P2P·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핑은 가능하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 B경찰서 사무실. 한 경찰관이 업무용 PC를 이용, 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웹 서핑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주식거래나 게임 등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보운영 담당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내역 중 70% 이상이 포털 사이트 접속이다.

민원인 김모(36·북구 운암동)씨는 "민원인들이 앞에 있는데도, 버젓이 인터넷 서핑을 하는 직원을 본 적이 있다"며 "근무 중 업무 처리는 미뤄놓고 사적인 일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행태는 민원 처리 지연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 공익근무요원 PC까지 차단하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까지 차단할 방법은 없지만, 내부 통제 등을 통해 근무기강 해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버스·시장서 '지갑 조심'

## 동부·북부경찰, 소매치기범 잇단 검거

시내버스 정류장과 시장 등지에서 소매치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동부경찰은 28일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친 김모(46)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던 정모(여·49)씨의 현금 35만원 등이 든 지갑을 몰래 빼내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객들이 시내버스에 타려고 한꺼번에 몰리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박모(38)·정모(53)씨가 북부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보해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영장 청구

## 광주지검 특수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8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계사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부풀려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로 은행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Y씨는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 회계법인에서 지난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346〉 김종두

# 고교 에어컨 설치 예산 부풀려 사용

##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28일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등학교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려 편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A고등학교 시스템 에어컨을 1억6800만원에 발주하면서, 실제는 125m만 필요한 '중앙컨트롤러 전선'을 무려 26배나 부풀린 3283m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3158m분에 해당하는 2184만원을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관계 공무원은 검수과정에서 3283m에 해당하는 전선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도장까지 찍어 해당 업체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기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전기공사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법 행위 전직 단체장에 구상권

# 나주시, 강제집행 나선다

나주시가 전임 단체장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행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강제 집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산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모두 5명에게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들 전직 시장 등이 변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억5000여만원으로 5명이 1억7500여만원씩 나눠 내야 한다. 나주시는 이에 앞서 신 전 시장 등 공무원 5명의 재산 조회와 함께 가압류 조치했다.

구상권이 집행되면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시 행한 행위로 변상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신 전 시장 등이 감사원에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 심리와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신 전 시장은 주택 등 대부분 재산이 모친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고 그나마 중고 자동차도 2분1은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등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전직 공무원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일부 주택 등에 불과해 구상권 청구액의 3분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신 전 시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구상액 범위 등을 판단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파이팅! 외치는 국토대장정 대원들** 28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제5회 전남대 국토대장정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대장정은 노란자전거팀이 해남 땅끝을 출발해 전남대까지, 도보팀은 전남대를 출발해 임진각에 이르는 코스로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어업감독 공무원 바다에 빠트린 40대 구속

##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은 28일 해상에서 검문 중이던 어업지도선을 자신의 배로 들이받아 단속공무원을 바다에 빠트린 1.35t급 무등록어선 선장 박모(4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광양시 금호동 LNG 부두 동쪽 0.5마일 해상에서 치어 포획용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운항하던 중 검문검색에 나선 어업지도선(보트)을 충격해 전남도 어업감독 공무원 김모(6급)씨를 해상으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박씨는 어업지도선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자신의 어선으로 단속용 보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 보트와 증거 수집용 카메라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일 못한다" 때려 숨지게 해놓고…

## 목포해경, "동료 침실서 숨졌다" 거짓 신고 선장·갑판장 구속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거짓신고까지 한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8일 동료 선원을 집단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신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선장 백모(39)씨와 갑판장 조모(5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4시25분께 신안군 임자도 앞 해상에 정박중인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선원 김모(52)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백씨 등은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김씨가 평소 일에 서툴다는 이유로 지난 5월부터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구타를 당한 김씨가 숨지자 해경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동료 선원이 어선 침실에 숨져있었다"며 거짓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 '사인은 폭행에 의한 내장파열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의 범행이 탄로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교육기관 소재 전 경찰서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앞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선정,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한 부대 근무 남녀 부사관 동반 탈영

쌍나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남녀 부사관이 함께 탈영했다가 8일 만에 경찰에 자수.

○…28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단을 탈영했던 이 부대 소속 권모(35) 상사와 박모(여·28) 하사가 탈영 8일 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의 한 파출소에 자수.

○…사단 측은 영외거주자인 이들이 함께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행방을 뒤쫓았으며 동반 탈영하게 된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법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방침.

/연합뉴스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지방법원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개강 7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